01~43-건설1월 1904.6.17 2:35 AM 페이지37

부실 업체 진입 차단, 불법 업체 퇴출 체계 구축키로

- 투명성강화, KISCON 시스템으로常時감시 · 모니터링가능 -

건설 분야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GDP의 17.5% 총고용의 8.2%를차지하는등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대단히크고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큰 기여를 해왔지만동시에부패문제에관한한가장 취약한분야로인식되어왔다.

건설 분야,' 부패에 가장 취약 '인식

2002년도에부패방지위원회에서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행정기능분야별부패인식도조사결과에서도건설분야가 66.5%로 가장 높다. 이러한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무엇보다 건설 시장과 활동주체에관한정보가투명하게공개되지 못하고심지어공사실적까지도허위로작성되는 등 정확한 정보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많기때문으로보인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건설 공사 관련 부정 · 부패의 척결 등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 없이는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의4개핵심정책분야중하나로투명성제고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주요 대책을 발표한바있다.여기에서는지난해12월발표된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중 건설산업 투명성 제고방안을위주로간략하게살펴본다.

건설 선진화 위해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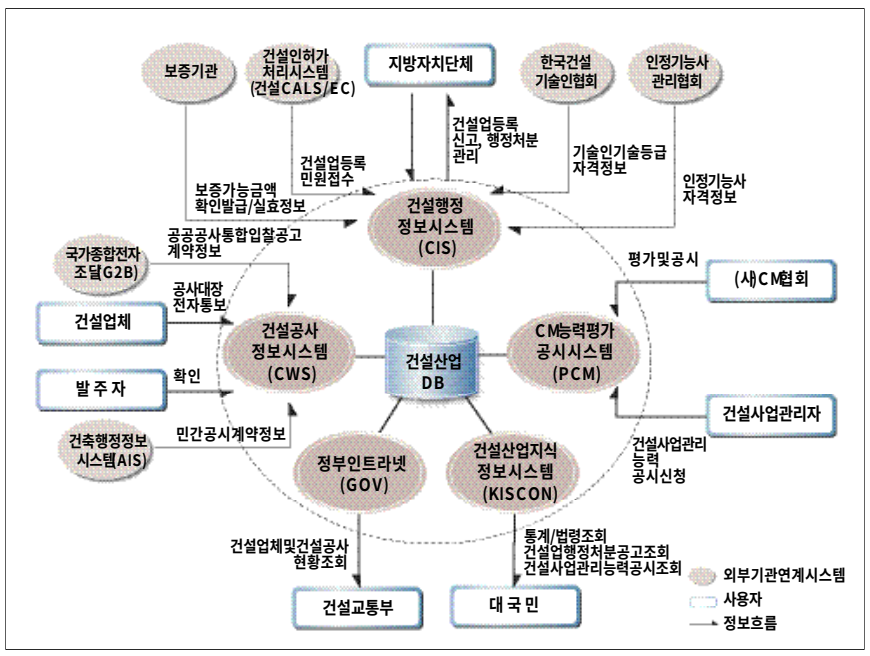
건설산업은대표적인수주산업이라는특성과사업의대규모성, 장기간의공기및기술적 · 전문적분야라는특성등으로인하여 계획, 설계, 입찰 · 계약, 시공 · 감리, 유지관리의 각 단계별로 다양한 부패 발생 원인이상존하고있다. 따라서, 사업시행단계별 다양한 부패 발생의 원인 및 사례를 분석 ·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진화 전략에서는 건설산업의 투명성을강화하기위한여러방안을마련하여앞으로의제도개선에반영할계획이다.

정보망 활용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

건설산업의 모든 정보를 종합 관리하기 위해 1999년부터건설산업 DB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왔으며올해이사업이마무리되면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KISCON) 완성된다. 이 시스템은 건설산업 중앙 DB를 중심으로6개개별정보시스템과 대한건설협회 · 공제조합 · 기술인협회 등 17개 유관기관과의정보연계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건설산업 정보망 구축으로 건설업체의 등록 · 처분 현황과 공사 수행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 · 현장 기술자의 이중 배치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 · 모니터링함으로써건설산업의투명성을제고할수있게 된다.

우선불법하도급(일괄 · 재하도급및일반건설업자간하도급등)은매년건설업체가시공능력평가를받기위해건설협회에신고하는기성실적 신고 정보와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의건설업등록 · 처분정보및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의건설공사대장정

건설산업 정보화 시스템 구성 현황



01~43-건설1월 1904.6.17 2:35 AM 페이지38

건교부에서도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활용해부실·불법업체의시장진입을사전에차단하는한편, 건설시장의대표적불법·부조리행위인 일괄 하도급·중층하도급등불법행위업체를퇴출시켜나아갈계획이다.

보를 상호 비교하여 위법 사항을 적발하며, 현장기술자의이중배치(미배치·기술자자격미달등)는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건설공사대장에기재된현장기술자의이름·주민등록번호·기술자자격 사항·배치 기간의정보를기준으로적발하게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건설 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실·불법 업체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차단하는한편, 건설시장의대표적불법·부조리 행위인 일괄 하도급·중층하도급 등 불법 행위 업체를 퇴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원수급인의직접시공의무제를병행·도입하여 수주 후 커미션만 받고 도급공사 전매, 일괄 하도급 등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행위를사전에 방지토록하고시공능력평가자료허위제출시현재의형사처벌외에추가로영업정지등행정처분도 가능토록「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시민단체, 지역주민등의 감시 기능강화를위해건설공사정보의인터넷공개범위의확대를추진할예정이다.

턴키제 개선, 하도급사선정 투명성 강화

최저가낙찰제 시행 이후 단순 공사도 일괄입찰로발주하는등턴키발주를남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턴키 심의시에도 불충분한설계심의, 심사위원에대한로비등으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지적되어 왔다. 이에앞으로는턴키공사선정기준을엄격히적용하고, 설계 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공사 하도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원도급자의하도급업체선정절차의객관성·공정성을 평가하여 PQ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추진중에있다.

이외에도설계변경시관련정보의공개 및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의 확대 등 설계 변경에 대한 투명성 확보, 건설감리제도의 개선, 수의계약제도 및 신기술·신공법 선정 과정의 투명화, 실적공사비제도개선등도추진해나갈계획이다.

업계 스스로 투명 경영 실천해야

2003년 TI(국제투명성기구)가발표한국가별 청렴도 지수에서 우리나라는133개국 중 50위였다고 한다. 현재 경제 규모로 세계 11위(한국은행), 건설 시장 규모로는 1999년 기준 세계 9위이며 2010년에는 세계 8위가 될 것으로 전망(S&P)되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하여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없다. 건설산업이고부가가치전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공사 발주 체계 선진화 등 건설 생산의효율성제고, 건설산업의투명성확보및 성장기반의확충등산업전반에걸친대대적인혁신이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필요한 것은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다.

아울러 건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업계종사자들스스로투명한행정및 경영을실천하고건설산업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을아끼지않아야한다. 기술개발을등한시하고, 요행에의한 낙찰만을기대하며각종불법·부조리한방법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의 발전여지는사라지고말것이다. 정부와업계가공동으로, 건설산업이국가경제활동의주역으로다시태어날수있도록최선을 다할때 건설산업은투명하고선진화가 이룩될 것이다.

김흥진
건교부건설경제담당관실서기관